

“상상력은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

이도흠 교수, 한국불교학회 여름워크숍서 주장

조주 스님이 두 스님에게 물었다. “그대는 전에 여기 온 적이 있는가?” 한 스님이 대답했다. “외본 적이 없습니다.” 조주 스님은 “차 한잔 들게나”라고 말했다.

다른 스님에게 똑같이 물으니 그 스님은 “왔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조주 스님은 “왔었다”고 답한 스님에게도 “차 한잔 들게나”라고 말했다.

결에 있던 원주스님이 “스님, 와 보지 않은 사람이나 외본 사람에게 모두 차를 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조주 스님은 “원주야”하고 부르더니 “차 한잔 들게나”라고 말했다.

조주의 ‘꺾다거(喫茶去)’ 공안이 다. 공안은 머리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된다. 공안 뿐 아니라 불교는 세상 모든 것을 허깨비(幻, 환)로 보고, 이를 깨고 깨달음(覺)에 이르라고 강조한다.

상상력(想像力, Imagination)은 이미지(image)를 떠올리고 구성하는 능력으로 허깨비를 가깝지만, 인간이 상상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인류 문화의 발전은 담보될 수 없었다.

상상이 허깨비를 쫓는 것이라면 수많은 불상과 경전에 묘사한 극락과 지옥, 부처님 말씀에 상상을 덧붙



7월 31일-8월 1일 통도사 자비도량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여름워크숍에서 기조강연한 이도흠 교수(오른쪽)와 좌장 조성택 교수.

여 이뤄진 수많은 비유와 수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불교에서 상상력은 부수고 배척해야 할 대상인가?

이런 의문에 대해 “인간은 상상력을 통해 존재의 근원에 대해 성찰하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우주와의 합일을 시도하지만, 환(幻)은 환일뿐으로 해체하고 또 해체해야 진리에 다 가설 수 있다”는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한양대 이도흠 교수는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가 7월 31-8월 1일 양산 통도사 자비도량에서 개최한 2009여름 학술워크숍에서 ‘불교적 상상력, 그 쟁점과 원리’를 주제로 기조강연 했다.

이 교수는 “조주의 ‘꺾다거’ 공안의 핵심은 ‘차(茶)’”라며 “차와 인접한 환유(Metonymy, 서로 관계있는 것으로 유추해 의미작용을 일으킴)

는 스님, 절, 깨달음, 청정세계 등”이라고 말했다. 봄 햇살을 받고 생명의 싹을 틔운 것 같고 우러난 것까지 맑음은 물론 차를 마시는 사람 또한 맑다는 설 명이다.

이도흠 교수는 “스님들이 절에서 차를 마시며 곧잘 깨달음에 이른다. 다선일미(茶禪一味)라는 말도 이에 연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차를 마시게”는 “깨달음에 이르시게”가 된다. 또, 절에 와본 사람과 처음인 사람에게 모두 차를 권함은 분별을 여린 깨달음이다.

이도흠 교수는 “차의 환유는 찾았이 차나무 전체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차=음료’라는 뜻을 담고 있다”며 “차를 마시는 것은 일상의 행위

로, 차를 마시라는 것은 일상을 되풀

이함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름 화두에 대신시키자면 일상에서 도를 찾으라는 뜻”이라며 “여기 절에 온 적이 있거나 없거나 달리 다른 곳에서 도를 구하지 말라. 평상심이 바로 부처의 마음, 도(道)이며 평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다. 차를 마시는 일상에서 깨달음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도흠 교수는 “(차를 통해 살피듯) 환유적인 기호들은 인접성의 상상력을 통해 다른 경험적 기호들과 연결된다. 환유는 이상적이고 보편적 것이라기보다 경험적이고 특수한 것”이라며 “‘학자-먹물’처럼 환유의 상상력은 차이를 드러내고 생성의 사유를 통해 존재를 풍요시킨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철학자와 시인 등은 상상력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

이게 하면서 세계의 본질을 드러냈다”면서 “환이라 해서 상상력을 내치면 창조도, 세계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이고 무의식적인 통찰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도흠 교수는 “환은 환일뿐으로 상상력(환)은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이라며 “세계 자체가 환으로, 환을 생각하는 그 자체 또한 환이라며 끊임없이 환을 해체해야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택 기자 cetana@buddhapia.com

‘동의보감’ 의학서 최초 세계기록유산

직지심체요절 등 7건으로 아시아 최고·세계 여섯 번째 보유국 돼

〈동의보감〉이 의학서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경무)은 “7월 30일 유네스코가 우리나라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동의보감〉은 17세기 초, 의성(醫聖) 허준(1539-1615)이 선조의 명을 받아 동아시아 의학 등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해 편찬한 전통의학의 결정판이다.

이번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은 국립중앙도서관(25권 25책·보물 제1085호)과 한국학중앙연구원(25권 25책·보물 제1085-2호)이 소장한 〈동의보감〉이 포함 된본이다.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한국은 1997년의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2001년의 <



보물 제1085호 <동의보감>.

직지심체요절과 <승정원일기>, 2007년의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총 7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경무 문화재청장은 “이번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유네스코가 <동의보감〉이 갖는 역사적 진정성, 세계적인 중요성, 독창성, 기록정보의 중요성, 관련 인물의 업적 및 문화적 영향력 등을 인정한 것”이라 설명

했다.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아시아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하게 됐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김정배) 장서각은 8월 6일 19세기 중엽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본 <동의보감〉을 언론에 공개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공개한 한글본 <동의보감〉은 궁체(宮體)로 흘려 쓴 필사본으로 언해본 가운데는 유일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관계자는 “당시 왕실 여성들에게 읽히려 한 글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17세기 초 왕명을 받아 허준이 완성한 <동의보감〉이 250여 년 뒤에도 여전히 왕실 의서로 활용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택 기자

선진국가 건설에 한국불교 역할은?

한국교수불자聯, 8월 17~19일 법흥사서 한국 교수불자대회

불자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진국가로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 상지영서대 교수)는 8월 17~19일 영월 법흥사에서 ‘선진국가 건설과 한국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2009 한국 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 박세일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5개 분야에서 발표가 진행된다.

△정치분과(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에서는 경주대 박기태 교수가 ‘불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 정치의 과제’를, 김규철 동국대 겸임교수가 ‘불교적 가치지향 진정 소수자의 정치 신사고’를, 정천구 영산대 前 총장이 ‘불교의 공화주의 정치철학에 관하여’를 발표한다.

△경제분과(같은 날 오후 1시부터)에서는 최덕규 동아대 교수가 ‘한국경제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 임동순 동의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불교적 이해’에 대해, 박영배 동의대 교수가 ‘지역발전과 종교의 역할’을 모색한다.

△사회분과(같은 날 오후 2시 20분부터)에서는 동국대 고진호 교수가 ‘불교의 교육이념에 비추는 교원 양성방안 모색’을 주제 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동국대 박사과정 이승곤 씨와 광주대 최선우 교수가 각각 ‘불교의 불성개념의 교육과정 원리 고찰’과 ‘연기론 관점에서 접근한 경찰과 시민의 관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분과(같은 날 오후 3시 40분부터)에서는 진각대 김경집 교수가 ‘선진국가 건설과 불교문화’에 대해, 경남대 김영주 교수가 ‘이명박 정권의 언론관련법 재개정 내용에 관하여’를 발표한다.

△경계분과(같은 날 오후 1시부터)에서는 최덕규 동아대 교수가 ‘한국경제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 임동순 동의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불교적 이해’에 대해, 박영배 동의대 교수가 ‘지역발전과 종교의 역할’을 모색한다.

태대 교수가 ‘불교적 관점에서 본 애니메이션 장면화에 관한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과학분과(19일 오전 8시 30분부터)에서는 인하대 김범수 교수가 ‘웹 2.0시대와 불교문화’에 대해, 대구대 김경희 교수가 ‘물리적 공명현상과 생물학적 공감, 그리고 불교적 선’을, 서울대 우희종 교수가 ‘과학을 넘어서 생명과 삶을 위한 깨어있음’에 대해 살핀다.

이 외에도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특강과 참선실수, ‘불교학생들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매일 밤 108참회가 진행되며, 회향과 함께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최용춘 회장은 “OECD국가 중 여러 모로 낙후된 한국의 현실로 볼 때 선진복지국가의 지향은 불국토 건설과 통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성택 기자

조성택 기자

조성택 기자

조성택 기자

조성택 기자

조성택 기자

조성택 기자

조성택 기자

조성택 기자

학술 문화재 소식

종립학교 교직원 수련회

불교교육연합회(회장 오영교 동국대 총장)는 8월 6-8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제43차 불교종립학교 교직원 수련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80여 조계종 소속 종립학교 교직원들이 참가해 유동호 교법사단장 등의 특강과 불교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정신의 함양과 교육현장의 정보교환을 했다.

조성택 기자

자원봉사자 모집

국립부여박물관(관장 권상열)은 8월 10-21일 2009년 자원봉사자(제10기)를 모집한다.

자원봉사자는 전시 문화재설명, 교육·체험 안내, 유물·자료 정리 등을 하게 되며, 박물관 간행도서 제공, 강좌·답사우선 참여, 자원봉사자증·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자원봉사 희망자는 국립부여박물관 홈페이지(bueo.museum.go.kr) 참조. (041)830-8434

조성택 기자

광해군과 불교 학술대회

광해군의 원찰에서 광해군을 중심으로 조선중후기 불교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보사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8월 22일 오후 1시 남양주 봉인사에서 ‘광해군과 조선중후기 불교계’를 주제로 제87차 정기 월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법산 스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차차서 동방대학원대 교수가 ‘백곡처능의 <간폐석교소>와 탈유교주의’를, △박해당 서울대 규장각 연구원이 ‘광해군 시대 대표적인 고승들의 국가의식’ 등을 발표한다.

조성택 기자

위덕대 간호학과 신설

진각종립 위덕대(총장 배도순)가 간호학과를 신설해 201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위덕대는 “지난 6월 간호학과 신설 계획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해 간호학과 25명 정원 신설을 통보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위덕대는 이번 간호학과 신설로 지역의 전문대 졸업생들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해 고급 의료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위덕대는 항공관광학과와 신재생에너지공학과도 신설해 201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조성택 기자

현대불교현불샵 입점 기념 특별 세일전

전통오동나무참숯반달이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세요!!!

주의!! 서랍장 큰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 반쯤 가능합니다.

옛고방 전통오동나무 참숯반달이 (입축 참숯부착)



- 대한민국 명장 가품공선생(명정04-14호)께서 디자인 하시고 직접 검수 후 검수필증 부착.
- 습기를 피해 쾌적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고급 반달이(숯관부착).
-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옷이나 수의도 안심보관.
- 제기 및 제수용품 보관함, 보석함, 고가의 도자기 등 귀중품 보관으로도 OK!!!

전통 오동나무 참숯 반달이의 특징

고급 가구재인 오동나무와 참숯판을 접목시켜 습기제거, 탈취, 향균 등의 기능을 더한 고급 반달이입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 습기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수의, 제기, 옷, 서류 등 귀중품 보관이 용이합니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보기 좋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 만점입니다.



수의 등 수납한 모습



제기 등 제수용품 수납한 모습

- 가 격: 대형 ₩ 238,000 ⇒ ₩ 198,000 (17% DC) [가로 73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소형 ₩ 198,000 ⇒ ₩ 158,000 (17% DC) [가로 59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재 질: 오동나무, 오동나무합판(뒷면), 신주장식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원산지: 한국 ·제조원: 옛고방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동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동행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